

# 더 나은 미래 변화 · 혁신 모색

### 전주시, 국내외 석학 · 전문가 참여 '전주미래도시포럼' 12~13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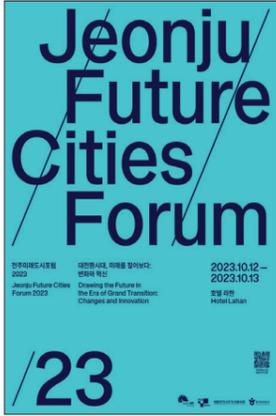
4차 산업혁명과 환경·기후위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시각각 변화가 일어나는 대전환시대를 맞아 도시와 시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 포럼이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12일과 13일 이틀간 라한호텔에서 대전환 시대를 맞아 도시와 시민들이 도전과 기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트렌드와 관점을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하는 '전주미래도시포럼 2023'을 개최한다.

'대전환시대, 미래를 짚어보다: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이집트 여성 최초의 우주인인 사라 사브리외의 기조연설로 서막을 연다.

사라 사브리외는 미국 노스다코타 대학교 항공우주학과 박사과정 중으로, 블루 오리진의 '뉴 셰퍼드'에 탑승해 우주 비행을 한 이집트 여성 최초의 우주비행사로 알려졌다.

이어 시는 미국 뉴올리언스와 일본 시즈오카, 이탈리아 피렌체 등 전주의 국제 자매·우호도시 대표들과



전주미래도시포럼 메인포스터

함께하는 '글로벌도시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대전환시대와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에 대한 토론을 나눌 예정이다.

이어 둘째 날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미래도시

와 디지털혁신 △문화콘텐츠 △환경과 기후변화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도시와 시민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패널 세션이 예정돼 있다.

첫 번째 '미래도시와 디지털혁신' 세션에는 최근 UN 총회 과학미래에서 사회를 맡았던 스콧 커닝햄 SDG와 공동창립자, 김진우 연세대학교 교수와 이진형 데이터마케팅코리아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트렌드를 분석하고 진단하게 된다.

또한 '미래도시와 문화콘텐츠' 세션에서는 '범 내려온다'의 홍보주요인 오홍섭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장과 안창욱 광주과학기술원 AI대학원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도시를 활기차게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축제와 행사, 관광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세 번째 '미래도시와 기후환경' 세션에서는 홍중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와 엘리아 카우루 루트허

ISEAS 연구원, 이민 저우 웰드뱅크 도시개발부 선임 컨설턴트, 장남정 전라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장 등이 발제를 맡는다.

이와 함께 이번 전주미래도시포럼에서는 세계지방정부연합-아태지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UCLG 청년포럼'도 함께 진행된다.

'내일의 도시에 힘 실어주기: 청년이 주도하는 대전환시대 혁신'을 주제로 진행되는 청년포럼에는 빙 뱅 립 싱가포르 테마섹폴리테크닉대학 글로벌 담당관, 하태역 대한민국의도지사협의회 국제화실장, 황이슬 리슬 대표 등이 참여해 향후 세계 모든 분야에서 시시각각 변화가 일어나는 대전환의 역사적인 순간을 살고 있다며 "우리 전주는 세계의 많은 도시,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미래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뜻깊은 논의의 장을 열고 보다 강하고 잠재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기후 위기, 경제위기 등 모든 분야에서 시시각각 변화가 일어나는 대전환의 역사적인 순간을 살고 있다"며 "우리 전주는 세계의 많은 도시,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미래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뜻깊은 논의의 장을 열고 보다 강하고 잠재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시민 원하는 안전 정책 발굴 나선다

### 전주시, '제3회 한바탕전주 시민대토론회' 참가자 모집

전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을 발굴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전북여성가족재단 발관 대강당에서 '내가 만드는 안전한 전주'를 주제로 '제3회 한바탕전주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민대토론회는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위험과 불편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는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안전한 전주를 만들기 위한 생활 체감형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6일까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과 공식블로그(blog.naver.com/jonju\_city)를 통해 시민대토론회에 참여할 시민 100여 명을 공개 모집한다.

토론회에는 안전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성별과 연령,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참가자에게는 시상상도 수여



필 예정이다.

김형미 전주시 홍보담당관은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면서 "안전한 전주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 반려견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전주시는 10월 한 달간 반려견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접종 대상은 동물등록을 마친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은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완료 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 접종을 위한 백신 분량은 2000마리분으로, 올해 아직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백신이 소진되기 전까지 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접종은 전주시 누리집 새소식란에 게시된 협력 동물병원 38개 중 접종을 희망하는 가까운 동물병원을 선택해

방문하면 된다.

광견병 예방접종비는 평소 2만 원 정도지만, 사업기간 내 지정 동물병원에서 접종 할 경우 5000원 정도의 접종수술비만 부담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063-281-5079)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광견병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할 수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며, 감염이 되면 치사율이 높아 1년에 한 번씩 보강접종이 권장된다"며 "시민과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 도내 30년 이상 노후위험시설 699곳 안전대책 추진

전북도소방본부는 5일부터 2025년까지 도내 30년 이상 699개 노후 위험물 시설에 대한 단계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9월 1일 부산 소재 복욕탕의 위험물탱크 폭발사고로 2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도내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이번 안전대책 추진이 진행 중이다.

전북에는 1993년 이전 허가된 30년 이상 위험물시설물은 699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소방은 '계도-확인-안전화'의 3단계로 구성된 안전대책을 세웠다. 먼저 5일부터 2024년 2월까지 계도단계로 △안전관리 서한문 발송 △민관 합동 컨설팅 △사용중지 및 용도폐지 권고 등을 실시한다. 이후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확인단계로 △소방검사 및 행정조치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 이후 안전화 단계로 정기적인 소방검사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 전주시, 한국농어촌공사와 간담회 가져

### 우범기 시장, 이병호 사장 만나 공동 발전 · 협력 위한 방안 논의

우범기 전주시장이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만나 이중호수 관광명소와 사업과 호우 피해 복구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우 시장은 4일 관계 공무원과 함께 전남 나주시 한국농어촌공사 본사를 찾아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양 기관 간담회에서 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전주지역 농업기반시설 관련 공동 발전과 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 시장은 먼저 최근 발표한 '이중호수 관광명소와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하고, △수변경관과 조화로 운 폭포형 상징조형물 △호수를 가로지르는 연결 다리 △플로팅 보트 체험 공간 △숙박단지 조성 등 단계별 사업 추진을 위해 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



우범기 전주시장이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사진 오른쪽)을 만나 이중호수 관광명소와 사업과 호우 피해 복구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사의 사용 허가 및 행정절차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우 시장은 향후 추진될 이중호수 관광명소와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전주시 간 실무협의체 구성 및 MOU 체결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우 시장은 전주시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폭우 피해지역에 단속 응급 복구 조치가 아닌 항

구적인 복구가 이뤄지도록 국비 지원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지난 7월 내린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인해 전주지역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시설물인 백석제의 일부 구간이 무너지고, 상습 침수 구역인 남정동 배수시설이 100ha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

하는 기관으로, 폭우 피해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 이중호수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양 기관의 협력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양 기관이 함께 성장하고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추석 연휴 음주운전 사고 난 경찰간부... 직위해제

전북의 한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경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30분경 순창군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갓길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경감은 술을 마신 채로 2km가량 운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경감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했다.

전북경찰청은 A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뉴시스

## 남원에서의 가을밤 추억 여행

# 제31회 남원 흥부제 통기타 라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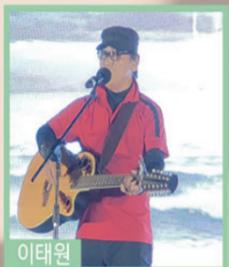
10월 8일(일) 오후 8시 ~ 9시

남원 사랑의 광장 무대(남원시 어연동 37-19)

출연진



국민MC 서정우



이태원



최형준



김민영



이창휘

주최 : (사)전북문화진흥원

주관 : (사)전북문화진흥원

후원 :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